## 300-5-134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16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權榮台는 李相熙의 권유로 1931년 4월 모스크바에 가서 東方勞力者공산주의大學을 1932년에 卒業하고, 京城地方 工場지대에 赤色노동조합 조직의 기초공작지령을 받고 入鮮했다. 그 후 경기 고양 종방공장에 직장클럽을 조직·지도했고, 普成고등보통학교 학생에게 공산주의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경성조선제사공장 직공에게 공산주의 교양을 실시했다. 鄭泰植을 만나 경성적색노동조합 결성을 종용했고, 鄭泰植의 소개로 경성제국대학 교수 三宅鹿之助를 회견, 여러 문제의 실천을 협의했다. 그 후 많은 活動을 하였으며, 각자의 활동상황은 1935년 8월 8일 경성 지방법원 예심계 판사의 求公判回附 理由書에 記錄되어 있다.
- 이 文書綴은 鄭泰植 외 12명의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의 送達증서와 예심계 判事의 증인 소환장이 吳富田·吳南根·白潤赫에게 발부된 것부터 시작된다.
- 1935년 7월 1일에 三宅鹿之助의 증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증인 朴東珪의 신문조사도 행해졌다. 7월 2일 徐升錫·吳富田·沈鍾晨의 증인심문조사가 있었 고, 7월 2일 安浩性·朴日馨·安浩臣·片凊子·金良仙·李貞淑·金在善·金順德·金鉉·李貞賢·金會媛 등의 證人召喚狀이 발부되었고, 6월 21일에 호적조회가 있었다.
- 1935년 7월 5일 李錫冕·崔成浩·金海祚·金孝得에 대한 예심계 판사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鄭泰植 등의 구류갱신 결정이 있었고, 송달증서가 수록되어 있다. 1935년 7월 8일 辛海甲·李興同·金聲大·尹寧燮·鄭成龍·安洸龍·池玉成 등에 대한 예심 판사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 7월 16일 鄭泰植 5회, 權榮台 5회, 韓六洪 4회의, 被告人 신문조사가 있었고, 7월 17일 金大容 4회, 金普成 4회, 安鍾瑞 4회, 朴鼎升 4회, 徐升錫 4회, 李明新 4회, 金喜鎭 4회, 崔慶玉 4회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7월 18일 金麟洙의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7월 19일 李元奉 4회, 許均 3회, 安炳春 3회, 李丙驥 3회, 安三遠 3회, 李順今 3회, 李景仙 3회, 鄭七星 3회, 李鉉相 3회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7월 20일 崔山福 4회, 邊雨桓 3회, 任澤宰 3회, 南萬熙 3회, 鄭龍山 3회, 李百万 3회, 金三龍 3회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구류기간 갱신결정이 있었고, 7월 23일 卞洪大 4회, 金元經 3회, 李星出 4회, 沈承文 3회, 崔永昌 3회, 朴壽昌 3회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 1935년 7월 25일 京城地方法院 豫審係 判事가 검사국에 예심중인 鄭泰植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의 검사 處分의 照會가 있었고, 검사국의 회답이 있었다. 徐升锡·許均·李順今·邊雨植 등은 起訴猶豫處分을 받았고, 李景仙·南萬熙·任澤宰는 無嫌疑處分을 받았다.
- 卞洪大 등 6명의 구류일 변경결정이 있었으며, 李景仙의 감상록이 송부되었다.
- 1935년 7월 29일 예심계 判事는 鄭泰植 외 13명, 安炳壽 외 13명, 卞洪大 외 5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取調終了로 검사국 검사의 意見을 구한 바, 기소의견이었다. 許均의 구류계속 결정이 있었고, 鄭泰植 외 33명의 西大門刑務所 在監 決定이 있었다.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예심종결 결정이 1935년 8월 8일 있었다. 主文은 本件을 경성지방법원의 公判에 回付한다는 것이며, 각인에 대한 理由가 수록되어 있다. 8월 9일 소송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었고, 검사는 소송기록 및 증거물을 경성지방 법원에 송부했다. 各人에게 송달된 예심종결 결정등본 등 서류가 있다.